DOI: https://doi.org/10.16879/jkca.2019.19.2.041 한국지도학회지 19권 2호 2019(41~51)

윌리엄 댐피어의 동아시아 지역지리

정인철*

East Asia Regional Geography of William Dampier

In-Chul Jung*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계몽주의 지리학 발달에 기여한 윌리엄 댐피어가 기술한 동아시아 지역지리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댐피어가 동아시아에 대해 언급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댐피어의 무역풍과 해류 지도는 당시 동아시아 바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태풍과 허리케인이 동일한 유형의 열대폭풍이라고 정의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항해기에서 찾을 수 없는 정치, 종교, 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저서에 수록된 정보는 향후 18세기 영국의 동아시아 인식에 관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주요어 : 윌리엄 댐피어, 동아시아, 지역지리, 무역풍, 계몽주의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of East Asian geography described by William Dampier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nlightenment geography. For this, I reviewed the geography contents of East Asia described by Dampier. As a result of the study, Dampier's maps on trade winds and ocean current provide invaluable description about East Asian maritime information at the time, and he defined that typhoons and hurricanes were same phenomena as the same type of tropical storm. I have also confirmed that detailed information of politics, religion, commerce, etc. that can not be found in other navigation narrative is described. The contents dealt in his travel reports can be used as a material on the future study for the British perception of East Asia of the eighteenth century.
Key Words : William Dampier, East Asia, Regional geography, Trade winds, Enlightenment

I. 서론

영국의 항해가인 윌리엄 댐피어(William Dampier, 1651~1715)는 뛰어난 지리학적 업적을 남겼다. 그의 부모는 그를 학자로 만들려 했지만, 부모님의 사망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 해적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해적 활동보다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고, 자신이 해적선을 타고 다니면서 경험한 지역의 지리적 내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다(Hasty, 2011). 결과적으로 그는 세계를 세 번 주항했으며, 총 7권의 저서를 남겼다. 당시 그가 방문한 지역들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그의 여행기는 이 지역의 세밀한 정보를 영국에게 제공했고, 이후 영국의 해상제국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탐사한 지역의 정보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가 "댐피어의 탐사로 인해 유럽 제국의 영역이 세계의 끝까지 확장되었고, 다른 항해자들이 그를 모방하도록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것은 그의 항해기로 인해 미지의 땅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기록한 방식이 과학적이면서 엄밀해서 이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는 의미 역시 가진다(Lamb *et al.*, 2001).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실제로 그가 1697년 출간한 「새로운 세계일주(A New Voyage Round the World)」는 과학적인 엄밀성으로 인해, 출간되기 2년 전인 1695년 12월에 「런던왕립학회지(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관심으로 인해 그는 1697년 3월 이 학회에서 연설을 했고, 또 이를 계기로 그의 저서는 출간되자마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댐피어의 저서는 지리정보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자신이 항해한 지역의 정보를 관찰한 다음, 다른 지역의 정보와 비교했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하여 이론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람이 표층해류의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이다(Shipman, 1962).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그가 제작한 무역풍 지도는 18세기 최고의 해양학적 업적으로도 간주되고 있다(Chaplin, 2007). 그가 제작한 지도를 가지고 제임스 쿡(James Cook)을 비롯한 이후의 영국 탐사가들이 항해했고, 또 그의 기록이 정확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보의 분량이 워낙 많아 알렉산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이후의 과학자들과 여행자들이 그가 여행한 지역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그의 저서를 '정보의 광산'으로 지칭했다(Preston and Preston, 2004).

그래서 그의 저서가 이후의 학문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기상학, 항해기술, 인류학, 동물학 및 식물학, 문학작품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Jack, 1961; Shipman, 1962; Walker, 2011; Williams, 2015). 일찍이, 댐피어를 지리학자로 간주하고 그의 업적을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Dampier-Whetham(1929)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그가 기술한 지역정보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Offen(2000)은 댐피어가 한 때 체류한 적이 있는 니카라과의 로그우드(logwood) 벌목 사업의 역사와 영국인이 이 지역의 벌목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Withers(2007)는 그는 학문적인 호기심과 객관적인 기술방법을 근거로 지리학적 관점의 계몽주의가 댐피어의 1697년「새로운 세계일주」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그가 기술한 지역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Johnson(2013)은 댐피어가 저서에서 언급한 뉴기니와 솔로몬제도의 화산활동을 분석한 결과 그의 스케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화산폭발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만, 당시 화산이 발생한 섬들의 위치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했다.[1)]

그림 1. 댐피어의 「동인도제도 지도」
출처 : 프랑스 국립 도서관.

댐피어는 세계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그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지역은 서인도제도이다. 이것은 그가 그곳에서 오랜 기간 벌목과 무역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괌, 수마트라, 필리핀의 루손과 민다다오, 중국 연안지역, 타이완 주변의 도서지역, 그리고 베트남 연안지역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수집한 동아시아 정보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지만 그가 기술한 동아시아 지리정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저서에 수록된 동아시아 지역지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기술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댐피어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종교, 인종, 풍습, 산물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림 1은 그의 1697년 「새로운 세계일주」에 수록된 「동인도제도 지도(a map of the EAST INDIES)」인데, 지도에 표시된 점선은 그의 항해 경로이며, 이 지역들의 상당수를 방문했다. 그가 방문한 지역이 많고, 또 기술내용이 워낙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비교적 체류기간이 길고, 또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필리핀, 중국 연안, 베트남 연안 지역의 지역정보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댐피어의 동아시아 무역풍 기술

댐피어는 1679년부터 1691년까지 세계를 세 번 주항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항경험을 바탕으로 1699년 「무역풍, 미풍, 폭풍, 조수, 그리고 해류(A discourse of trade wi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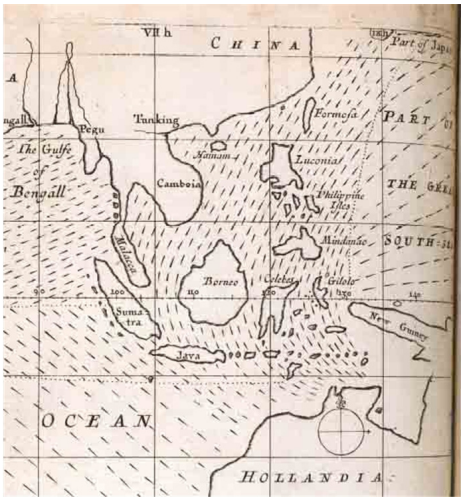

그림 2. 에드먼드 핼리의 1686년 「세계무역풍 지도」의 동아시아 부분

출처 : Halley(1687).

breezes, storms, seasons of the year and currents of the torrid zone throughout the world)」를 출간했다(Dampier, 1699).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일반적인 무역풍, ②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해안 무역풍, ③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해안 무역풍, ④육풍과 해풍, ⑤특정 해안과 계절의 육풍과 해풍, ⑥폭풍, ⑦계절, ⑧조수와 해류를 다룬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관찰한 자료를 사용하여 무역풍 및 탁월풍, 그리고 대양의 해류에 대해 기술했다. 세계의 바람과 해류에 대해서는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Edmond Halley)가 1686년 「런던왕립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으나, 댐피어는 핼리보다 훨씬 넓은 대양 지역의 바람과 해류를 관찰했고, 또한 이를 지도로 제작해서 이후 영국 해군과 선원들의 항해 지도로 사용되었다(Chaplin, 2007). 실제 핼리의 지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해류와 바람의 정보는 매우 개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는 이 지도가 수록된 논문에서 육지와 바다의 기온 차이가 무역풍과 몬순 차원의 대기순환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다(Halley, 1687). 반면 댐피어는 바람이 해류의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댐피어의 이론은 1793년 조지 해드리(George Hadley)가 지구 자전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무역풍을 설명한 이론이 인정받기 이전까지는 100년 이상 해양기상학의 표준이 되었다(Markley, 2007). 댐피어의 영향으로 이후 영국정부는 영국동인도회사 선원들

그림 3. 댐피어의 「태평양 무역풍 지도」 일부

출처 : 미국 존 카터 브라운 도서관.

이 항해 시 경험한 해류와 무역풍의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했다(Walker, 2011).

댐피어의 「무역풍 지도(A View of the General & Coasting TRADE-Winds in the great SOUTH OCEAN)」를 살펴보자(그림 3). 그는 남회귀선과 북회귀선 사이의 지역을 주로 항해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바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했다. 지도에서 화살표는 일반적인 바람 또는 해안풍의 방향을 표시한다고 지도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태평양에 표시된 나선 모양의 선으로 북반구에서는 탁월풍이 시계방향,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도 이북에서는 북동풍, 그리고 이남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인데, 댐피어는 지구자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살표는 적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표시되어 있지만, 적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댐피어는 적도 근처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위도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또 바람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기술했다.

지도에 인도양(INDIAN SEA)으로 표시된 장소에는 'Shifting Wind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는 이 용어를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즉 계절풍 또는 몬순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수마트라와 자바 남쪽 지역에는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아 바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인도양의 남위 4도에서 남위 30도에 이르는 지역에 이동풍(shifting winds)이 부는데, 이 지역의 이동풍은 대체로, 동남동, 동남 또는 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태평양에서와 같이 급격히 바람의

바람이 바뀌는 일은 없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이 지역 북쪽의 섬이 많은 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뀐다고 했다.

댐피어는 몬순을 폭풍과 무역풍의 의미 두 가지로 사용한다. 아마도 4월과 9월에 폭풍이 있고 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Duckert, 2017). 그는 9월에서 4월까지의 계절풍을 이스트 몬순(East Monsoon), 나머지 계절의 계절풍을 웨스트 몬순(West Monsoon)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겨울에는 동풍, 그리고 여름에는 서풍계열의 바람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북동계절풍, 여름에는 남서계절풍이 분다. 그리고 이스트 몬순이 불면 날씨가 좋지만, 웨스트 몬순이 불면 폭풍과 비가 많아진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들 몬순은 모두 해안을 따라 분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인도를 오가는 배들은 4월과 9월에 풍향이 바뀌는 몬순에 의존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러한 계절에 따른 바람의 변화를 인도 벵골만 남동부의 니코바르 제도(Nicobar Islands)에서 수마트라로 항해하면서 직접 경험했다고 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중국으로 향하는 영국동인도회사 배들은 웨스트 몬순을 활용한다. 다만 가까운 거리는 몬순을 거슬러 해풍과 육풍만 이용해 항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그는 말라카와 타이완 간의 탁월풍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4월에서 9월까지는 남서풍, 그리고 10월부터 3월은 북동풍이 부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리고 그는 해풍(sea breeze)에 대해 기술한다. 그는 해풍은 연안의 무역풍으로 낮과 밤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다. 해풍은 아침 9시 정도에 시작해서 낮에 불며, 밤에 그친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 반탐과 수마트라 북부의 아친(아체)에서 육풍은 연안과 직각 방향으로 불며, 간혹 방향이 직각에서 어긋나기도 한다고 기술했다. 또 크리스마스 경에는 북동 또는 북북동풍이 부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기록했다.

댐피어는 중국 연안의 상천도(上川島)에서 1687년 7월 초 태풍을 경험했다. 그는 태풍을 'Tuffoon'으로 표기했는데, 해상에서 발생하고 그 진행과정을 구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연안의 태풍과 카리브해의 허리케인이 명칭만 다르지 둘 다 결렬한 폭풍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상이라고 기술했다. 그는 태풍을 일종의 거대한 소용돌이라고 정의했다. 이 소용돌이가 오기 전에, 북동방향에서 수평선에 가까운 하늘에서 매우 검은 색의 무거운 구름이 나타나고, 거대한 바람이 불지만, 이후 잠시 잠잠해지는 시기가 약 1시간 정도 지속되고, 이후 서쪽에서 보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기술했다(Dampier, 1697). 그리고 중국 연안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캄보디아 동해안[2]에서도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들 장소는 모두 적도 이북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서인도제도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그가 이렇게 태풍과 허리케인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676년 6월[3] 멕시코만 남쪽에 위치한 캄페체만(Bay of Campeachy)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로그우드와 벌목 장비를 모두 잃어버리고 파산했기 때문이다(Dampier, 1700).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이 동일한 종류의 폭풍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III. 동아시아 지역정보

1. 괌

댐피어는 이 섬을 스페인이 지배하는 라드론 제도(Ladrone Islands)에 속한다고 기록했다(그림 1). 그리고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Guabon' 이지만 스페인인들이 지명을 'Maria'로 변경했다고 기록했다.[4] 그리고 섬의 남쪽에 대포 6문을 가진 20~30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군사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멕시코에서 마닐라로 오는 배의 보급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 섬에 한 번 정박하면 풍향이 재출항하기에 불리하다고 기술했다.

섬의 동쪽 사면은 절벽으로 이루어지고 또 무역풍의 영향으로, 배의 정박이 불가능해서, 배들은 저지대이며 작은 사빈이 존재하는 서쪽 해안으로 접근한다고 기록했다. 섬의 토양은 적색이며, 건조하지만 비옥하며, 주된 농산물은 쌀, 파인애플, 수박, 사향, 멜론, 오렌지, 라임, 코코넛, 빵나무라고 기록했다.

그는 섬의 주민들이 친절하며, 예의 바르지만, 한센 병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당시 스페인 신부 2~3명 정도가 이 섬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빵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일 년에 8개월간 수

확이 가능하지만, 채취한지 24시간이 지나면 굳는다고 했다. 토양이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아, 벼의 재배면적은 좁고, 많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나 어획량은 풍부하지 않다고 기록했다.

그는 이곳의 산물로 토디(toddy)라고 불리는 술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토디는 코코스야자의 수액으로 양조하는 술을 지칭하는데, 이 술은 제조 후에 금방 신맛을 내므로, 24 시간 이내에 마셔야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쌀을 이용해 주조되는 아락(arak) 역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단 아락은 도수가 낮으므로, 브랜디를 첨가해야 펀치(punch)를 만들 수 있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술이 인도의 고아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고아 아락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실제로 아락은 현재도 지중해 동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이후 그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견과류가 기름을 짜는데 이용되며, 껍질은 컵, 접시, 국자, 숟가락,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코코넛의 껍질을 이용해 밧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2. 민다나오

댐피어는 민다나오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당해 기술한다. 실제로 이들은 민다나오에 1686년 7월 22일 도착했고, 약 5개월 20일 정도 체류한 다음, 1687년 1월 14일 이곳을 떠난다. 이들이 민다나오로 간 이유는 이곳에서 충분한 보급품을 구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향후 영국에 유리한 진출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무역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인데, 최대 종족은 민다나오족이며, 힐라누네스족(Hilllna), 술룩족(Suluks), 그리고 알푸레스족(Alfoores)이 이곳에 거주한다고 기술했다. 힐라누네스족은 섬의 중앙 지역에 거주하며, 해상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 줄에 노를 12 또는 14개를 가진 배를 제조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위치한 금광에서 채굴한 금으로 외부의 상품을 구매하며, 밀랍 역시 이곳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했다. 그리고 술룩족은 북서쪽, 그리고 알푸레스족은 산지에 거주한다고 했다. 그는 민다나오의 물가 정보를 언급한다. 그는 이곳에서 금은 온스 당 14 스페인 달러[5], 집 1채는 14 달러, 철 100 온스는 4달러에 거래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민다나오인들은 계산에 약하기 때문에, 중국인 화교가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민다나오인들의 자존심이 강하며, 낯선 사람들에게 정중하며, 쉽게 사귄다고 기술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자신을 모독한 사람을 독살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 지역의 농산물로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전분인 사고(sago)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사고야자[6]를 우선적으로 지칭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일 년에 3-4개월을 사고를 먹는다고 기술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재배하나, 얌, 감자, 호박. 수박, 바나나, 육두구, 정향, 빈랑, 두리안, 오렌지, 코코넛, 플랜테인(plantain)과 바라밀(jackfruit)이 생산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재배되는 담배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의 테르나테(Ternate)와 티도레(Tidore)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와서 쌀, 밀랍, 그리고 담배를 구입하는데, 마닐라를 제외하고는 이곳이 동인도제도 최대의 담배생산지라고 기술했다. 마닐라에서 판매되는 담배보다 민다나오 담배의 색이 더 진하고 잎사귀가 넓고, 통통한데, 이는 민다나오의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민다나오의 담배가 마닐라 담배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기술했다. 그렇지만 스페인인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마닐라 담배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인도의 마드라스에 있는 영국 기지에서도 마닐라 담배를 피우는데, 민다나오의 담배는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지역의 술탄과의 대화를 통해 영국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 이들과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술탄이 스페인어를 읽고 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말레이어 역시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곳에서 향료의 일종인 정자피(clove bark)와 정향을 구입했다. 술탄은 만일 영국인들이 이곳에 기지를 설치하고 정착하면, 자신들이 정향을 재배해서 영국인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섬에서 육두구가 많은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다나오 사람들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이 지역에서 향료가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무역업자와 육두구를 거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무역업자들은 향료를 배에 실고 바타비아에 입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바타비아 항내에 진입하기 전에 향료를 모두 인근 지역에 하역한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항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 민다나오에서 남쪽으로 20리그(league)[7] 떨어진 곳에 미앙가스섬(Palau Miangas)이 있는데, 이곳에는 정향이 나무에서 떨어져 썩을 정도로 많이 자라고 있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영국인들이 이 섬에서 향료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향료무역의 잠재력을 이 지역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는 "영국인과 민다나오인은 하나이다."라는 주민들의 말에 고무되었고, 이곳 주민들을 친근하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민다나오 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적했다. 그는 열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민다나오인들이 게으른 것은 술탄의 폭정 때문이라고 보았다. 술탄이 너무 엄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며, 또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므로,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아침에 벌거벗긴 다음 채찍으로 때리고, 기둥에 묶어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뜨거운 날 모래 위에 등을 대고 눕게 하는 형벌 역시 사용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형벌을 야만적(barbarous)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에서 흥미로운 풍습 하나를 발견했다. 부자의 아내인 경우는 순수한 친구 사이인 남자와 공적인 장소에서의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가 하인을 통해 남자에게 담배와 빈랑을 선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우스운(comic) 풍습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민다나오의 지리적 위치를 중시했다. 그래서 태평양이나 거대한 남방대륙(Terra Australis)을 통해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거대한 남방대륙은 고대와 중세에 남반구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미지의 땅을 지칭하는데, 당시는 아직 이 땅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정인철, 2018). 그는 칠레 남쪽 해안과 거대한 남방대륙을 통과한 다음 무역풍을 이용해 이곳에 도착하는 방법을 기록했다.

3. 꼰다오섬

현재는 베트남에 속하는 꼰다오섬(Pulo Condore)은 북위 8도 40분에 위치하는데, 그가 '캄보디아의 강'이라 부른 메콩강에서 남동쪽으로 20리그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두 섬의 고도는 높은데, 두 섬은 동서로 약 4~5리그 정도나 떨어져 있지만, 북쪽에서는 약 1마일만 떨어져 있다(그림 4 참조). 지도의 점선은 댐피어의 항로를 나타낸다. 그는 이곳에 타르나무(tar tree)가 자라는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끓이면 타르가 된다고 했다. 그는 타르로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르나무에서 즙을 짜서 만드는 일에 종사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거북을 잡아 기름을 짜는 일도 생업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리고 타르와 거북기름은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수출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산물로 망고를 지적했다. 이 섬의 망고나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과나무처럼 크게 자라며, 열매가 작은 복숭아처럼 크다고 했다. 특별히 즙이 많고 향기가 매우 우수한데, 망고를 반으로 잘라 식초와 소금을 뿌려 만드는 망고피클(mango-achar) 역시 이 지역의 농산물로 언급했다.

그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매우 가난하다고 기록했다. 그는 이 섬의 전략적 위치를 지적했다. 이 섬은 일본, 중국, 마닐라, 통킹, 인도차이나의 관문으로, 이곳에서 배들은 보급품을 보충하고 배를 수리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그는 이곳에서 말라카해협, 또는 순다해협으로 갈 수 있고, 인도차이나 지역과 교역하기 좋으므로, 이곳에 요새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실제로 댐피어의 보고에 근거해서 1702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항로 개발을 위해 이곳에 정착지를 설립했다(Salmon, 1739). 그러나 베트남인들이 영국인들이 세운 공장을 파괴해서 영국인들은 3년 후 이곳에서 철수 할 수밖에 없었다. 댐피어 이후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교역에 종사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장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이곳이 기지를 건설하기에 매우 나쁜 장소라고 판단했다. 나무와 물, 그리고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영국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던 이곳에서 영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Suarez, 1999).

4. 상천도

댐피어의 저서에서 가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상천도(上川島)이다. 그는 이 섬을 성 요한의 섬(Isle of St. John)으로 표기했는데, 동일한 명칭의 섬이 민다나오에서 3~4 리그 정도 떨어진 북위 7도에서 8도에 위치한 동쪽 연안에 위치하며, 그곳을 6월 21일 지나갔다고

기록했다. 그렇지만 실제 그가 도착했다고 생각한 민다나오 동쪽의 성 요한의 섬은 지도상에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섬이므로, 그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8] 광동성 연안에서 남쪽으로 14㎞ 떨어진 상천도는 포르투갈인들이 1517년 중국과의 교역을 시작한 곳으로 1557년 마카오를 점령한 이후 포르투갈은 이 기지를 포기했다(Bridgman and Williams, 1837).

그는 이 섬의 원주민들은 중국인이나 현재는 타르타르족의 치하에 있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청나라 정부가 이들에게 변발을 강요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기술했다. 댐피어는 이곳에서 농부들이 소를 몰며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3~4 마리의 소가 둥글게 돌며 연자방아를 돌려 탈곡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섬의 여성들의 발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발이 작은 것은 전족풍습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중국 사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담의 높이는 6피트, 너비는 2피트이며 재질은 벽돌이라고 기술했다. 그는 사원에 위치한 범종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서술했다. 종은 사원의 바닥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종의 크기는 2피트이고 둘레는 16인치인데, 종을 치는데 사용되는 10인치 길이의 쇠막대 3개가 종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고 기록했다.

5. 바타네스제도

필리핀 최북단에 위치한 바타네스제도를 그는 타이완 주변의 섬으로 기록했다. 그는 바타네스제도(Batanes Islands)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다. 그는 이 제도에 속한 다섯 개의 섬을 오렌지(Orange), 몬무트(Monmouth), 그라폰(Grafton), 바시(Bashee), 그리고 염소(Goat)섬으로 명명했다(그림 4).

그런데 이 지도의 위치 정확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 장소들을 정확하게 비정하기 위해 1867년 영국 해군성에서 간행한 「바시와 바링탕 해협과 루손섬 북부 지도(Northern portion of the island of Luzon with the Bashee & Balintang Channels)」를 살펴보면 오렌지섬은 잇바얏섬(Itbayat Island), 몬무트섬은 삽탕섬(Sabtang Island), 그라폰섬은 바탄섬(Batan Island), 바시섬은 이부고스섬(Ivuhos Island), 그리고 고트섬은 더쿠에즈섬(Dequez Island)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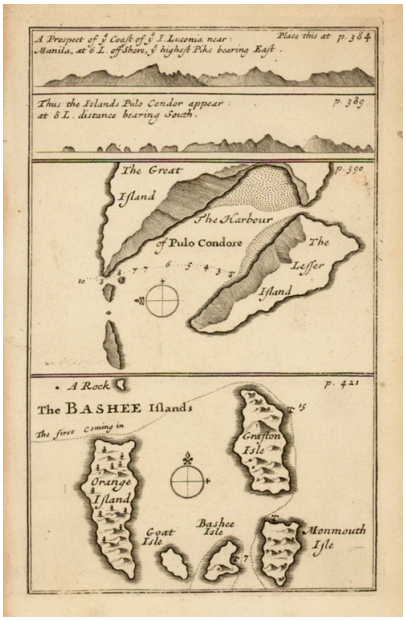

그림 4. 꼰다오섬과 바타네스제도
출처 : Dampier(1697).

그는 이부고스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당한다. 이곳에는 하나의 취락이 있는데, 닭은 없고 염소와 돼지는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나뭇잎으로 나체를 가리고 살지만, 일부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옷을 입는데, 이렇게 조잡한 옷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은 면으로 만든 속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금색의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재질이 금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손으로 문질러 색이 바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가옥에 대해 기술하는데, 길이는 측면이 5.5피트인데, 들보는 7~8피트 높이에 위치한다고 했다. 집 한 구석에 화로가 위치하며, 나무 사다리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는 이유는 해적과 외부인을 두려워해서 즉시 피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주민들이 맥주와 맛이 비슷한 사탕수수와 검정색 딸기를 3~4일 발효시킨 바시(Bashee)[9]라 부르는 술을 마신다고 했다. 댐피어 일행은 이 섬에서 바시를 접대 받았으므로, 이 섬을 바시섬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라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그는 이 사회의 특징을 일부일처제, 친절함, 조용함, 상호부조, 예의라는 단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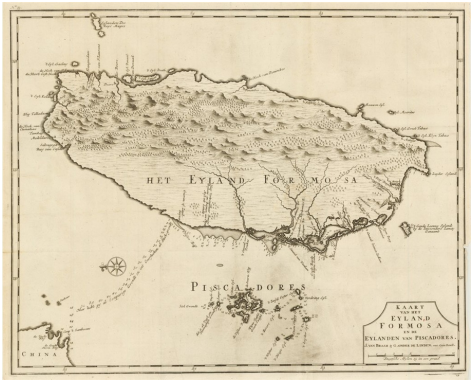

그림 5. 프랑스와 발렌틴의「타이완과 펑후제도 지도」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용하여 설명했다. 댐피어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물품도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들의 돈으로 비시 술을 구입해서 자신들에게 접대한 것을 칭송했다.

이들의 주된 농산물은 얌과 감자이며, 쌀과 옥수수는 재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화폐는 없지만, 약간의 금속을 바나나 껍질에 싸서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다. 댐피어는 원주민들이 2~3개의 금속으로 5~6갤런의 술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다. 댐피어 일행은 이들에게서 염소를 굴렁쇠 하나, 그리고 70~80파운드 중량의 돼지를 2~3파운드의 쇠를 주고 구입했다.

6. 펑후제도

펑후제도(澎湖諸島, Pescadores Islands)[10]는 현재 타이완의 펑후현에 속하는데 타이완 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림 5는 1727년 네덜란드의 프랑스와 발렌틴(Francois Valentijn)의「타이완과 펑후제도 지도(Kaart van het Eyland Formosa en de Eylanden van Piscadores)」이다. 지도에서 좌측이 북쪽에 해당하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22년 이곳에 상륙해 바타비아와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무역선의 기착지로 사용했다(Griffis, 1895). 그러나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인들을 설득해 이곳을 떠나 타이완으로 이동하도록 강권했고, 네덜란드인은 이곳을 떠났다.[11]

댐피어 일행은 이곳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았다. 심사관은 이들의 국적과 이후의 목적지를 물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영국인이며 이후 당시의 무역항인 푸젠성의 샤먼(Amoy, 厦門)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심사관은 댐피어가 타고 간 배가 많이 파손되었으므로, 수리가 가능한 샤먼으로 가서 배를 수리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이미 샤먼에 영국의 배가 두 척이나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다.

이곳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면서 댐피어는 심사관이 입은 옷과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선물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다. 당시 심사관은 검정색의 실크 모자를 착용했고, 검정색 외투를 입었다고 했는데, 묘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창산(長衫)을 입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리는 댐피어가 탄 배의 선장에게 밀가루, 빵, 그리고 파인애플을 선물로 보냈다.

그리고 이곳에 잠시 정박한 댐피어는 이곳의 풀이 무성한 경치가 영국의 도싯(Dorset)과 윌트셔(Wiltshire)와 비슷하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염소와 소를 키우면서 생활한다고 기록했다. 섬에 위치한 항구에는 한족이 아닌 만주족(Tartar) 군인 300~4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 3년간 체류한 다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댐피어 일행이 떠나올 때, 중국인 관리는 선물로 약간의 소고기, 염소 4마리, 돼지 2마리, 2통의 밀가루, 20개의 전병, 쌀로 만든 중국술 2항아리, 밀가루로 만든 술 55병을 선물했다.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술은 한 병이 약 1/4 갤런인데, 병의 입구를 진흙으로 밀봉해서 술을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술 한 병의 현지 가격은 6펜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댐피어배의 선장은 관리에게 답례품으로 스페인의 은으로 만든 칼과 금목걸이를 선물했다.

IV. 논의 및 결론

댐피어의 저서에 기록된 동아시아 지역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계를 3번 주항했는데, 1차 주항과 3차 주항 시에 동아시아를 통과했다. 따라서 그의 기술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의 항해기에 기록된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이전의 지도나 항해기와 달리, 미지의 땅에 존재하는 괴물인간이 사는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16세기의 프랑스 디에프 학파의 동아시아 지도에 등장하는 니코바르(Nicobar)의 괴물 인간, 그리고 17세기 말까지 동아시아의 섬 지역에 표시되던 괴물 사티로스(Satyr)의 섬들에 대

해 그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정인철 2017). 대신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Celebes)에서 치열이 네 개인 소년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는 단순한 기형아의 문제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식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상상의 지리학에서 경험의 지리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arnes and Mitchell, 2002). 즉 이성이 무지와 맹신, 불합리한 관습이나 전통과 같은 어두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계몽주의의 정신이 그의 항해기에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관찰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섬세하게 해류와 바람을 관찰해서 무역풍지도를 제작했고, 또 태풍과 허리케인이 동일한 유형의 열대폭풍이라는 일반화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런던왕립학회에서 1666년 「원양에서 활동하는 선원들에게 권고하는 선원지침서(Directions for Seamen, bound for far voyages)」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침서는 나침반 바늘의 변화, 경위도 좌표, 강이나 곶과 같은 지역의 조수와 간만, 조금과 사리, 해류의 방향, 모래톱의 수심. 낮과 밤의 바람과 날씨의 변화, 허리케인, 무역풍, 혜성 관찰에 대한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가 배포되었을 당시 댐피어는 해적이었고, 또 그가 이 지침서를 실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므로, 그가 이 지침을 참조하여 항해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Edwards, 1994). 따라서 그의 관찰에 대한 욕구가 세밀하게 자연현상을 기술하게 했고, 이를 통해 해류와 바람에 대한 일반화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댐피어의 항해기는 엄밀한 관찰과 이성적 합리성에 근거해 기술되었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지역의 현지지식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그는 관찰한 내용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다른 항해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고 사소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당시의 교류 현황을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상천도의 사찰을 기술하면서 종의 규격 및 제단의 규격, 담장의 높이와 너비 등을 매우 세밀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꼰다오섬에서는 망고피클을 만드는 방법을 관찰했고 이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사실상 댐피어 이전의 탐험가들이 기술한 항해서는 항해 도중 만난 원주민들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댐피어는 원주민의 생김새를 비롯해,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방법, 코코넛 주스를 만드는 비법은 물론 질병까지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기록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무역정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의 거래가격과 환율이다. 민다나오의 금 가격, 펑후제도의 술 값 등은 다른 항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정보이다. 그리고 민다나오 현지의 언어 역시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된다. 당시 술탄이 스페인어를 읽고 쓸 수 있었고, 또 말레이어 역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의 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민다나오와 루손의 담배가 인도의 영국인 기지에서 팔리는 가격을 제시했다.

넷째, 동시대의 다른 항해자들과 달리 가치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지리적 사실만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원들과 원주민들 간의 성행위와 같은 다른 항해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 역시 자제했다. 민다나오의 형벌에 대해서 야만적이라고 기술하는 정도이다. 대신 그는 '시민적(civil)'이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한다. 민다나오 주민들이 외부와 무역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무역을 할 정도로 시민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손님에게 친절한 것을 시민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치판단이 아닌, 야만과 시민적이라는 정도의 가치판단에 머무른다. 바시섬의 의복과 같이 일부 미개하고 정체되어 있는 공간으로 언급한 곳은 존재하지만,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지역의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념은 그의 동아시아에 대한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다섯째, 그는 항해지에는 영국이 향후 이 지역에서 취할 정책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다나오 남쪽에 위치한 섬에 영국이 진출하는 것 등과 같은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이었다. 또 꼰다오섬에 영국기지를 설치한 것 역시 그의 제안이었다. 실제로 댐피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을 했다(Neill, 2000). 따라서 댐피어의 지리학은 힘이 아닌, 지식, 그리고 이성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계몽주의 초기의 지리학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댐피어의 저서는 과학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계몽주의 시대 문학을 선도한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1719)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는 모두 댐피어의 항해 경험을 모티브로 해서 저술되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 인간이 고급한 인식 수준으로 나아간다는 경험주의 인식론을 반

영한 작품들이다(양유성, 2011).

유럽인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포르투갈인들의 아시아 인식,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록,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이영석, 2008; 정성화, 2009). 18세기 영국인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댐피어의 기록에 대한 언급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註

1) 댐피어가 저서에 수록된 내용 중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은 그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퍼스 주변 지역에서 1688년 조우한 원주민의 육체적 특징을 근거로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종족이라고 기술한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지리학적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이민경, 2016; Anderson and Perrin, 2007).
2) 댐피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캄보디아에 동해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했다.
3)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6월의 어느 시기(sometime)라고만 기술했다.
4) 괌은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에서 가장 큰 섬이다.
5) 은화로 스페인 내에서는 페소(peso)란 명칭을 사용했다. 극동, 아메리카, 유럽에서 통용된 세계최초의 국제통화로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를 스페인 달러로 지칭했다.
6) 그는 이것을 리비나무(Libby tree)라 불렀으나, 정확한 명칭은 'Metroxylon sagu'이다.
7) 1 영국 리그는 약 5.556 ㎞에 해당한다.
8)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의 1570년 「아시아 지도(Asiae Nova Descriptio)」에는 'Ilhas de S. Johan', 그리고 빈센조 코로넬리(Vincenzo Coronelli)의 1690년 「필리핀, 몰루카, 순다로 구분한 인도지도(Isole dell'Indie diuise in Filippine, Molucche, e della Sonda)」에는 'S. Gio'로 표기되어 있다.
9) 현재도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제조되고 있는데, 바시(Basi)로 표기한다.
10) 그는 이곳을 'THE PISCADORES, OR FISHERS ISLANDS'로 표기했다.
11) 실제로는 1624년 중국의 공격을 받고 타이완으로 물러났다.

참고문헌

양유성 역, 2011, 「과학과 계몽주의: 빛의 18세기, 과학혁명의 완성」, 서울: 글항아리. (H ankins, T., 1985, *Science and the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민경, 2016, "영제국 식민지 초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영국인 정착민 -바바라 다우슨의 「구경꾼의 눈으로」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35, 99-139.

이영석, 2008, "18, 19세기 영국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0.

정성화, 2009, "한국 관련 지식의 유럽적 기반과 내용: 17세기 전반기 예수회 중국 선교," 대구사학, 97, 109-142.

정인철, 2017, "16세기 디에프 학파 지도 속의 '거대한 자바'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7(3), 15-30.

정인철, 2018, "고대와 중세의 대척지 개념과 지도학적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8(1), 1-14.

Anderson, K. and Perrin, C., 2007, 'The miserablest people in the world': Race, humanism and the australian aborigine,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8(1), 18-39.

Barnes, G. and Mitchell, A., 2002, Measuring the Marvelous: Science and the Exotic in William Dampier, *Eighteenth-Century Life*, 26(3), 45-57.

Bridgman, E.C. and Williams, S.W., 1837, *The Chinese Repository*, Canton: Maruzen Kabushiki Kaisha.

Chaplin, J.E., 2007, *The First Scientific American: Benjamin Franklin and the Pursuit of Genius*, London: Hachette.

Dampier, W., 1697, *A New Voyage Round the World*, London: James Knapton.

Dampier, W., 1699, *A discourse of trade winds, breezes,*

storms, seasons of the year and currents of the torrid zone throughout the world, London: James Knapton.

Dampier, W., 1700, *A Supplement of the Voyage Round the World: Voyages and Descriptions*, London: James Knapton.

Dampier-Whetham, W.C.D., 1929, William Dampier, Geographer, *The Geographical Journal*, 74(5), 478-480.

Duckert, L., 2017, *For All Waters: Finding Ourselves in Early Modern Wetscap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Edwards, P., 1994, *The Story of the Voyage: Sea-Narrative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Griffis, W.E., 1895, The Japanese in Formosa, *Harper's Weekly*, 39, 423-424.

Halley, E., 1687,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trade winds, and monsoons, observable in the seas between and near the Tropicks, with an attempt to assign the physical cause of the said wind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16, 153-168.

Hasty, W., 2011, Piracy and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n the travels of William Dampier, c.1679–168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7, 40-54.

Jack, J.H., 1961, "A New Voyage Round the World": Defoe's "Roman à Thès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24(4), 323-336.

Johnson, R.W., 2013, *Fire Mountains of the islands*,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Lamb, J., Smith, V., and Thomas, N., 2001, *Exploration and Exchan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kley, R., 2007, Monsoon cultures: Climate and acculturation in Alexander Hamilton's A new account of the east indies, *New Literary History*, 38(3), 527-550.

Neill, A., 2000, Buccaneer Ethnography: Nature, Culture, and Nation in the Journals of William Dampier, *Eighteenth-Century Studies*, 33(2), 165-180.

Offen, K.H., 2000, British logwood extraction from the mosquitia: The origin of a myth,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80(1), 113-135.

Preston, D. and Preston, M., 2004, *A Pirate of Exquisite Mind*, New York: Walker & Company.

Salmon, T., 1739, *Modern History: or, the Present State of All Nations*, London: Bettesworth and Hitch.

Shipman, J.C., 1962, *William Dampier, Seaman-Scientist*,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Suarez, T., 1999, *Early Mapping of Southeast Asia*, Singapore: Periplous editions.

Walker, M., 2011, *History of the Meteorological Off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ams, G., 2015, The Historical Context and Influence of William Dampier's Hydrographic Science, *The Great Circle*, 37(1), 53-81.

Withers, C.W.J., 2007, *Placing the Enlighte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국 존 카터 브라운 도서관, https://jcb.lunaimaging.com/luna/servlet

프랑스 국립도서관, https://www.bnf.fr

교신: 정인철,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부산대 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icjung@pusan.ac.kr)

Correspondence: In-Chul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63 Busandaehak-ro, Geumjeong-gu, Busan 46241, Republic of Korea (Email: icjung@pusan.ac.kr)

투 고 일: 2019년 7월 2일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18일
투고확정일: 2019년 7월 19일